

# 민주당, 바이든·샌더스·워런 3강 싸움

## 막으려는 美 대선 경선...아이오와 코커스 D-7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각 당 후보를 뽑는 경선이 일주일 뒤인 내달 3일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공화당 경선은 재선 도전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무대'가 예상된다.

반면 후보가 난립한 민주당의 경우 누구 한명의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따라서 첫 승부처인 아이오와에서 누가 승리를 거머쥘지 관심이 쏠린다.

아이오와의 승리가 전체 경선 레이스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초반 판세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새세론이나 이변이나... '넵버' 2도 주목=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민주당에서 대선 레이스의 현실태를 이변이 연출될지가 관심사다. 현재 전국 단위 여론조사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3강 구

## 공화당은 트럼프 독주

## 3월 3일 '슈퍼 화요일' 주목

## 부동층·숨은표 향해 관심

도' 속에 피트 부티지지 사우스벤드 시장,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이 뒤를 쫓는 양상이다.

중도 온건파 바이든의 강점은 풍부한 경험에 기반한 안정감과 본선 경쟁력이다. 36년 동안의 상원의원 경력에 2009년부터 8년간 버락 오바마 정부 부통령을 지냈다.

샌더스는 초반 경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급상승 중이다. '강성 진보'로 분류되는 그는 청년층의 지지를 받는다. 내달 3일, 11일 치러지는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는 가장 빠른 경선 투표로서 '대선 풍향계'로 통한다.

아이오와에서 바이든이 1위가 되면 대선세를 입증하며 순항할 전망이다.

◇'슈퍼 화요일' 승세 굳히나, 장기전 되나=여러 주가 동시다발 투표에 나서는 '슈퍼 화요일'은 통상 대선후보 윤곽이 드러나는 결정적 시점이다. 올해는 3월 3일이다.

이날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14개주가 프라이머리를 치른다. 미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지역에 전체 대의원의 약 40%가 배정돼 있다.

한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기 전 당대회 전에 일찌감치 대선후보로 부각될 수 있다. 다만 혼전인 민주당 경선에서 '절대 강자'가 나올지 예단이 어렵다. 이 경우 슈퍼 화요일 이후에도 접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에선 트럼프 대통령 외에 빌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조 윌시 전 하원의원 등 3명이 나섰지만 '트럼프 대항마' 2명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곳이 많아 트럼프 대통령의 독무대가 예상된다.

◇부동층과 '숨은 표' 투표율 향배는=아

직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부동층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양당 대선후보가 맞붙을 때도 '스윙 스테이트(경합주)'를 중심으로 부동층 공략이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와 중서부의 아이오와, 위스콘신, 미시건,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등 5개주를 이기고 플로리다도 차지했다. 힐러리가 이곳을 잃은 것은 패배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숨은 표'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대부분 여론조사는 힐러리 승리를 점쳤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는 이런 예측 실패가 숨은 트럼프 지지층인 '샤이 트럼퍼스'(shy Trumpers)를 간과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기성 정치권이나 언론 등이 트럼프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는 제대로 답하지 않다가 실제 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 의사를 표실했다는 것이다.



##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 〈217〉 신종

신종(神宗, 1048-1085)의 성명은 조옥으로 복송의 제6대 황제다. 왕안석을 가용해 국력 회복을 위한 개혁을 추진했다. 복송의 대표적 개혁 군주였지만 역사적 평가는 엇갈린다.

5대 황제 영종의 장자로 모친은 선인 태후 고씨다. 1066년 황태자로 책봉되었고 이듬해 영종이 병사하자 19세에 즉위했다. 신종은 혈기왕성한 젊은 황제로 왕조의 장래를 깊이 근심하였다. 요라, 서하에 대한 과도한 세폐 지급으로 재정이 악화되었다. 현직뿐 아니라 전직, 퇴임 관료에 대한 후대로 국가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농업 생산이나 교역 활성화 등으로 늘어나는 세수가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1069년 부모의 복상을 마친

여해경이 정책을 뒤엎었지만 예전과 같은 패기는 사라졌다. 1076년 왕안석 퇴임 이후 신종이 직접 친정에 나섰지만 국정의 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신법은 결빙을 억제하고 농촌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중농정책의 성격이 강했다. 또한 상인들이 독점한 이익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강병책의 의미도 적지 않았다. 복송의 멸망을 신법의 무리한 시행 탓으로 돌리는 시각이 적지 않다. 복송을 이은 남송의 정치를 구별할 출신이 주도한 것이 이런 해석에 일조했다. 개혁에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왕안석의 집권은 6년에 불과했다.

대외정책은 어려움이 많았다. 1071년 변경을 담당한 왕소가 재상 왕안석 지원에 힘입어 비교적 큰 톨번 부족 20

## 복송 6대 황제...대표적 개혁군주

왕안석을 부재상인 참지정사로 기용하였다. 한강-한유 형제와 재상 증공량의 천거가 크게 작용했다. 왕안석을 불러 하문했다. "왕조가 100년간 큰 번고 없이 대체로 평온을 누린 이유가 무엇인가?" 왕안석의 답변은 100년간 태평했던 것은 오랑개의 세력이 약한 덕을 보았다고 사적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본조백년무사치자(本朝百年無事治子)를 읊었다. 나라를 바꾸는 대개혁이 시급하다는 요지였다.

신종은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라는 기관을 만들어 개혁을 주도하도록 하였다. 부국강병을 목표로 한 신법이 본격 추진되었다.

청묘(靑苗)·모역(募役)·시역(市易)·보갑(保甲)·보마(保馬) 등 행정·재정·군사 개혁 조치가 연이어 발표되었다. 신법 시행으로 기득권을 상실하게 된 황족·귀족·관료 집단의 반대가 치열하였다. 신법은 영세 상인의 보호와 대상인, 대지주의 경제적 이익 독점을 타파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신법에 반대한 세력을 구법당이라 한다. 사마광, 소순, 소철, 문안박 등이 대표인사다. 신종 사후 복송시대 동안 신법당과 구법당은 다섯 차례에 걸쳐 정권을 교체하였다. 영세 상인을 구제하기 위한 시역법으로 대상인과 귀족·황족이 크게 타격을 받았고 이는 결국 왕안석의 퇴진으로 이어졌다. 신법당인 한강과

만명이 복송에 귀순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복송의 영토가 약 1200리 가량 늘었다. 1073년 서하 이남에 사는 다수의 톨번국의 항복을 받아들였다. 진중대 체결된 전연의 맹 이후 처음으로 거둔 대규모 군사적 성취였다. 모역법, 보갑법, 보마법 등의 조치로 군사 부문에서 개혁의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베트남 정벌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요나라와의 국경 분쟁에서도 산서성 하동의 경제지를 양보해 손해를 보았다. 재상 부필은 상주문을 올려 황제의 친정에 반대했다. "놀라서 삼강과 간이 떨어질 지경"이라는 표현을 썼다. 대내적으로는 신법을 둘러싼 국론 분열로 어려움에 봉착했고 대외적으로는 국력 확장 뜻이 이루지 못했다. 잃어버린 고토를 회복하려고 1081년 서하를 공략하고자 60만 대군을 동원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원종 8년(1085) 3월 초 38세로 세상을 떠났다. 아들 조후가 8세의 나이로 즉위하니 철종이다. 조묘 선인태후가 수렴정정에 나섰다. 구법당이 다시 권세를 잡았고 신법당은 몰락했다. 낙양에 은거했던 연로한 사마광이 재상에 복귀해 신법의 전면 폐지를 선언했다. 조정은 정파간의 감정싸움으로 변질되었다. 20년 사용할 물자를 확보함에도 부패한 정치가 복송을 패망의 길로 인도했다.



이라크 보안군이 1일(현지시간) 친이란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의 공격을 받았던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 앞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 바그다드 미국대사관

## 로켓포 3발 직격

## 심각한 피해는 없어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26일(현지시간) 5발의 로켓포 공격을 받았으며 이 중 3발은 대사관을 직격했다고 AFP통신이 한 보안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직격한 3발 중 1발은 저녁식사 시간 무렵 대사관 구내식당에 떨어졌으며 또 최소한 한 발은 부대사의 거주지 부근에 낙하했다고 공격을 목격한 한 미 대사관 관계자는 밝혔다. AP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한 이라크 보안군 관계자를 인용해 로켓포 한 발이 대사관 담장 안쪽에 떨어졌다고 전했다.

이라크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AFP에 로켓포 공격으로 최소한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앞서 미 합동군사령부와 이라크 보안군은 성명을 통해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미군 측은 카투사 로켓 5발이 미 대사관 인근 강둑에 떨어졌으며 심각한 피해도 없다고 설명했다.

바그다드 내 고도 경비 구역인 그린존 안에 있는 미 대사관은 최근 몇달 동안 잇달아 로켓포 공격을 받았다. 이날 공격을 포함, 이달 들어서만 세 차례 공격이 있었으며 지난 20일에도 로켓포 3발이 대사관 인근에 낙하했다.

이번 공격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발생했다. AFP통신 기자들은 오전 7시 30분께 티그리스 서안에서 폭발음을 들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한국, 금강산관광 재개 등 의향 전달했지만 미국 반대”

## 日 요미우리 신문 보도

한국 정부가 이달 초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하자, 미국 측이 반대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한미일 협의의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과의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북한 철도 및 도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미국은 대응적인 견지에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유엔(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남북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

했다고 한다.

정 실장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 때도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없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관광을 둘러싼 남북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북한이 한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 815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sup>해방</sup>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sup>해방</sup>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sup>해방</sup>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266-4150, 573-4150, 528-4150, 513-4150, 572-4150, 576-4150